

8월 9일(월) / 대하 14-16

- ▶ **내용요약** : 역대하 14장에서 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15장에서 아사 왕은 오렛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리고 아사 왕 제 십오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16장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그럼에도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
- ▶ **질문** : 북 왕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사 왕이 의지한 것은? (16장)
- ▶ **생각하기** :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

8월 12일(목) / 대하 24-26

- ▶ **내용요약** : 역대하 24장에는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는 일곱 살의 어린 나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왕이 되었다.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전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였다. 25장에는 유다 왕 아마사가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에돔 사람들을 쳐서 승리한 후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26장에서는 유다 왕 웃시야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강성해진 후에는 교만해져서 스스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 ▶ **질문** : 일곱 살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24장)
- ▶ **생각하기** : 웃시야는 복을 받았으나,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을 침범하고 말았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처럼 말이다.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

8월 15일(일) / 대하 33-36

- ▶ **내용요약** : 역대하 33장에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앗수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러자 므낫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였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후 므낫세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노력했다. 34장에서는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8월 10일(화) / 대하 17-19

- ▶ **내용요약** : 역대하 17장에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 또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다. 이에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졌고, 이웃 나라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18장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함께 싸우자고 요청했고, 아합과 인척 관계였던 여호사밧은 그 요청에 응답하였다. 한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예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19장에서 선견자 예후는 아합 왕과 연합한 여호사밧을 규탄했다. 이후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개혁을 이끌었다.
- ▶ **질문** : 아사의 아들로 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왕은? (17장)
- ▶ **생각하기** :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악인과 연합하여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신앙적 결단과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자.

8월 13일(금) / 대하 27-29

- ▶ **내용요약** : 역대하 27장에서 요담은 이십오 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웃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전 뒷문을 건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여 견고하게 했으며 또한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28장에는 아하스가 이십 세의 나이에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뿐만 아니라 곤고한 중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2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 ▶ **질문** :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의 왕은? (28장)
- ▶ **생각하기** : 죄는 점점 더 자라서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죄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일 맞서 싸워야 한다. 동시에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다.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었다. 그리고 35장에서 요시야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하지만 이후 유브라데 강 거의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 올라온 애굽의 왕과 맞서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36장에서부터는 유다 왕국의 몰락이 본격화된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에 의해 끌려갔고, 여호아김과 여호야긴 왕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결박되어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후 왕이 된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했다.

8월 11일(수) / 대하 20-23

- ▶ **내용요약** : 역대하 20장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유다를 향했다. 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암몬과 모압 자손의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다. 21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우상을 숭배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심한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22장에서는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그 또한 아합의 길로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시키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자 요아스는 살아남았고, 23장에서 여호야다에 의해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 ▶ **질문** :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비가 된 사람은? (22장)
- ▶ **생각하기** : 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확신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8월 14일(토) / 대하 30-32

- ▶ **내용요약** :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둘째 달에 열넷째 날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히스기야의 개혁은 위대한 것이었다. 31장에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여, 그들의 반열에 따라 직임을 행하도록 했다. 또한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다. 한편 32장에서는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물리치셨다.
- ▶ **질문** : 유다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30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며 위축되기 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약한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 ▶ **질문** :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후 회개하여 다시 왕위를 회복했던 왕은? (33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애굽,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그러나 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